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특성화 우수상 수상

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새로운 소득원 개발보급 노력

김춘기 소장 "전문농업인 육성·농업 기술 보급에 매진 할 것"

지난 21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0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특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전남도지사 상패와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전남 21개 시·군 센터를 대상으로 평가 지표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 시·군을 선정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올 한해 '농촌인적자원 및 신소득원 개발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슬로건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쌀 거점단지 조성, 방초 매트를 활용한 논둑 제조기술 실증, 지역특화 월동작물(쌀귀리) 재배, 지역 특화작목 딸기 전문단지 육성,

미래 유망과수 도입, 작약 경쟁력 향상, 축산물 안정생산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적극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쌀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재배안정성과 높은 수량성 및 미질을 가지고 있는 새 청무 품종을 전남에서 가장 먼저 공공비축미곡 품종으로 선정했다. 3,000ha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해외 수출, GS25 편의점 납품, GS슈퍼마켓 인터넷물 사전예약 판매, 제주도 마트 입점, 농수산홍소핑 홍보 및 판매로 새청무쌀 산업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쌀귀리는 2012년부터 계약재배를 시

작해 올해 150농가, 444ha 규모의 전국 최대면적 단지를 조성했다. 올해 강진산 쌀귀리를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입점시킨 것과 함께 5개 업체 수매계약 체결하는 등 쌀귀리를 강진군 지역 월동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딸기 전문단지 육성'은 딸기 육묘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관내 딸기를 재배하는 18농가, 1.3ha 면적에 자가육묘시설을 설치하고 어미묘 월동 냉동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병 없는 고품질 우량묘 생산 기반을 구축해 농업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한우 조기임신진단검사를 통한 한우농가 적기수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해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안준섭 작물연구팀장이 한국 농업기술보급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6명의 직원이 여러 분야에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았고, 원예특작 기술보급, 축산기술보급 유공 등 민간부분 표창도 이어져 강진군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김춘기 소장

은 "신소득원 개발로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소득향상 및 농업인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강진군 농업기술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 기술 보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균형발전 위해 호남~제주 고속철 건설 필요"

완도군과 전라남도는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로 관광 벨트 형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상 이변으로 항공 및 항만 기능 상실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여객 수송 도모를 하고자 '호남고속철도 제주연장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제주연장 사업은 호남선 KTX의 종착역인 목포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도와 완도군은 국토교통부에 중국과 시베리아로 신경제 지도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작 우리나라 제주도는 미제시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속철도사업을 목포에서 완도까지 1단계, 완도에서 제주까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사업 우선 추진을 건의하였다.

사업 계획에는 본 노선이 자동차도도가 아닌 고속철도만 운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제주도 일부에서는 "자가용으로 제주도를 찾으면 관광 형태가 당일치기로 바뀌게 되어 렌터카 업체와 숙박업소 등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며 잘못된 정보로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완도에서 제주까지 2단계 구간은 현재 제주 제2공항의 사업이 찬·반으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제주도민이 수용할 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목포에서 제주까지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단계 구분 없이 추진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당장 추진 가능한 목포에서 완도까지 1단계라도 우선 건설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아울러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해양치유를 체험하려는 관광 수요 증가 및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도=김광수기자

장흥군 용산면 기관 단체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결의



장흥군 용산면은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용산면 기관 단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지역을 스

스로 지켜 내자'는 의미를 지니고 기관 단체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정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적극 협조 △ 연말연시 각종 모임 취소 또는 연기 △ 향우 고향 방문, 지역 주민 타 지역 방문 자제 △ 지역 사회 방역 분위기 조성 및 확산 등이다.

이시영 용산면장은 "오늘날 기관 단체의 결의는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에도 장흥군이 코로나 청정 지역인 이유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대출이자 2억 1천만원 등 코로나 피해업종 지원

해남군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특목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올해 매출 감소 등으로 운영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 452개소에 대

출이자의 3%인 2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 발생이후 소상공인의 대출금 규모가 평년에 비해 4~5배 늘어남에 따라 특례보증 출연금도 5배 늘린 5억원을 출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140개 업체에 34억 7,20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대출 시 발행하는 보증수수료(30~50만원)를 157개소에 총 6,130만원 지원했다.

특례보증 사업 신청 업종을 살펴보면 음식점(28.5%), 도·소매업(24.2%), 서비스업(18.5%) 순으로, 코로나19로 온라인 배달 주문 등을 선호하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피해가 큰 음식점 및 도·소매업에 지원이 집중됐다.
기동취재본부



조규상 최수미 오귀석

진도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진도군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군정발전과 군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3명을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등급은 기획예산과 홍보팀 오귀석씨, 우수 등급은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조규상씨,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최수미씨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 오귀석씨는 진도군 자체 유튜브 제작팀을 결성, 공무원이 직접 기획·설외·출연·촬영·편집으로 매주 2-3편씩 유튜브 영상 총 80개를 제작, 진도아리랑물 농수특산물 판매와 관광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능력을 인정 받았다.
우수 등급에 선정된 주민복지과

조규상씨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 지원과 관련,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 선정시 토지가격 적용률을 진도군 실정에 맞게 해석해 국비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는 원스톱 행정을 실천했다.

또 우수 등급인 민원봉사과 최수미씨는 진도군 범부서협회의 협조 아래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자격 보증인 보수로 인하를 추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선발된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파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도=조성용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